



권영세 안동시장이 한글배달교실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늦깎이 공부로 문맹 탈출 어르신들 새로운 인생 열다

안동 14개 읍·면 거주
비문해자 대상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 수료식

“오늘 3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는 세상 어떤 졸업식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수료식입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의 수료식 축하 내용의 일부이다.

안동시는 지난 29일 안동댐 세계불포럼기념센터에서 '2018년도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 수료식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은 읍면단위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들을 위해 2014년부터 문해교사를 파견해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및 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5

년째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첫 해 3개 면 45명의 교육생으로 시작한 한글배달교실은 올해 14개 읍·면 전체로 확대됐다.

학생 수도 314명으로 늘어나며 지금까지 총 800여 명이 수료했다.

또 교육과 함께 3권의 시집 발간과 시화전, 문해끝없는대회를 개최해 늦깎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특히 수료식에서는 '문해시화전'과 함께 국제교육도시연합 회원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도 진행했다.

김광수 평생교육과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이 한글교육과 함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다.

정운홍기자 jwh@hidomin.com

안동시 14개 읍면 한글배달교실 314명 수료

문해시화전과 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오늘 3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는 세상 어떤 졸업식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수료식입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의 수료식 축사 내용의 일부분이다.

안동시는 29일 오전 10시 안동댐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2018년도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 수료식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은 읍면단 위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들을 위해 2014년부터 문해교사를 파견해 한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5년째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첫 해 3개 면 45명의 교육생으로 시작한 한글배달교실은 올해 14개 읍·면 전체로 확대됐다. 학생 수도 314명으로 늘어나며 지금까지 총 800여 명이 수료했다.

또 교육과 함께 3권의 시집 발간과 시화전, 문해골든벨대회를 개최해 늦깎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특히 수료식에서는 ‘문해시화전’과 함께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회원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도 진행했다.

김광수 평생교육과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이 한글 교육과 함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다.

안동시는 29일 오전 10시 안동댐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2018년도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 수료식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은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들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문해교사를 파견해 한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안동시, 한글배달교실 통합 수료식 개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5년째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첫 해 3개 면 45명의 교육생으로 시작한 한글배달교실은 올해

14개 읍·면 전체로 확대됐다.

학생 수도 314명으로 늘어나며 지금까지 총 800여 명이 수료했다.

또 교육과 함께 3권의 시집 발간과 시화전, 문해 골든벨대회를 개최

해 늦깎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특히, 수료식에서는 '분해시화전'과 함께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회원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도 진행했다.

■남형기 기자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수료식”

국제교육도시(IAEC)의 날 기념행사

안동시, '2018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수료식
14개 읍면 비문해자 314명에 새로운 삶 선물



“오늘 3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는 세상 어떤 졸업식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수료식입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의 수료식 축하 내용 일부다.

안동시는 29일 안동댐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2018년도 찾아가는 한글

배달교실' 통합 수료식을 열었다.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은 읍면 단위 거주 한글을 모르는 이(비문해자)들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문해교사를 파견해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5년째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첫 해 3개 면 교육생 45명으로 시작된 한글배달교실은 올해 14개 읍면 전체로 확대됐다.

학생 수도 314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모두 800여 명이 수료했다.

또 교육 기간 3권의 시집 발간과 시화전, 문해골든벨대회를 열어 늦깎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수료식과 함께 '문해시화전'과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회원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도 열렸다.

김광수 평생교육과장은 “내년엔 보다 많은 소외지역 어르신들이 한글교육과 함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 수료식’ 개최

‘문해시화전·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 병행

시는 29일 오전 10시 안동댐 세계물포럼 기념센터에서 ‘2018년도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 수료식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주관 아래 읍면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들을 위해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첫 해 3개 면 45명 교육생으로 시작한 한글배달교실은 올해 14개 읍면 전체로 확대돼 학생 수 314명, 지금까지 총 800여 명이 수료했으며, 교육과 함

께 3권의 시집 발간과 시화전, 문해골든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늦깎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특히 수료식은 ‘문해시화전’과 함께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회원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도 진행했다.

평생교육과장은 “내년도 더 많은 소외지역 어르신들이 한글교육과 함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채현기자 95chyun@naver.com



14개 읍·면 한글배달교실 314명 수료

“오늘 3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는 세상 어떤 졸업식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수료식입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의 수료식 축하 내용의 일부분이다.

안동시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안동댐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2018년도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 수료식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은 읍면단위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들을 위해 2014년부터 문해교사를 파견해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5년째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첫 해 3개 면 45명의 교육생으로 시작한 한글배달교실은 올해

14개 읍·면 전체로 확대됐다. 학생 수도 314명으로 늘어나며 지금까지 총 800여 명이 수료했다. 또 교육과 함께 3권의 시집 발간과 시화전, 문해골든벨대회를 개최해 늦깎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특히 수료식에서는 ‘문해시화전’과 함께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회원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도 진행했다.

김광수 평생교육과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이 한글교육과 함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다.

김영삼기자

‘2018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 수료식

올해 14개 읍·면 전체 확대… 늦깎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 선물

“오늘 3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는 세상 어떤 졸업식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수료식입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의 수료식 축사 내용의 일부 분이다.

안동시는 29일 오전 10시 안동댐 세계물포럼 기념센터에서 ‘2018년도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 수료식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은 읍면단위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들을 위해 2014년부터 문해교사를 파견해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5년째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첫 해 3개 면 45명의 교육생으로 시작

한 한글배달교실은 올해 14개 읍·면 전체로 확대됐다. 학생 수도 314명으로 늘어나며 지금까지 총 800여 명이 수료했다. 또 교육과 함께 3권의 시집 발간과 시화전, 문해골든벨대회를 개최해 늦깎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특히 수료식은 ‘문해시화전’과 함께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회원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도 진행했다.

김광수 평생교육과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이 한글교육과 함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다.

권정민 기자